



@청진공원

@남인사마당

# 어디나 스테이지

# 2026

# 6월공연

## 여당 광풍 휩쓴 종로 지방 선거

###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구청장 후보 낙승



지난 6.3 종로구 지방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참패다. 다시말해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기록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세가 선거 광풍으로 나타나면서 '물마 투표' 행태가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선거 시작 전부터 여론의 지지율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선거 승패는 일찌감치 판가름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특검 강행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쇄되면서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양태를 보였다.

당선자는 지난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민의힘 정문현 후보에게 패배한 것을, 이번에는 와신상담 재대결을 벌이면서 승리로 설욕한 셈이 됐다.

【관련 기사 5면 투표 분석】

서울시의회 의원 종로구 선거는 과거의 전례를 깨는 결과가 나왔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세력이 우세했던 종로구 평창, 가회, 청운효자, 삼청, 가회, 교남, 사직동인 제1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후보가 국민의힘 이은주 후보를 481표 차이로 신승하는 모습을 이뤘는데, 이는 이번 선거가 여당 광풍으로 선거를 휩쓴 결과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윤선희 당선자는 본래 노원구에서 구의원을 지내고 종로로 이사 온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인물로 종로 사회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구의원으로 시의원에 출마한 이

이다. 총 10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6명이 선출되어 구의회의 다수가 됐는데, 본래부터 종로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거쳐 2명에서 1명만 선출하는 방식에서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강승은 후보가 당선되면서 구의회를 다시 접수하는 형태가 됐다.

종로구의회의 의원 당선자는 제9대 의원 11명 중에서 5명만 재선 출되면서 50% 이상이 물갈이되는 모습을 이뤘고, 이번에 등원하는 의원 중에는 제7대와 제8대의원을 지낸 유양순 후보와 제8대 노진경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 의회에 다시 등원하게 됐다.

한편 결과적으로 이번 종로구 지방 선거는 당초 예상대로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세를 타는 바람 이상의 광풍이 불면서 이것이 '물마 투표'로 이어지는 가운데 구

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호 '나 번'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예 다음부터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인다.

▶관련 선거 특집 5면

### 총 13명 선출자 중 더불어민주당 9명 당선 서울시의원 2명 포함 종로구 의원 6명 다수

종로구 선거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의 싹쓸이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를 비롯해서 윤선희, 선정환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 등이 모두 당선됐으며, 종로구의회의 의원 선거에서도 총 10명 중 6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러니까 총 1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약 70%인 9명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번 제8대 종로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구청장과 시의원 1명, 구의원 5명을 선출된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의 참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 유찬종 종로구청장

응주 후보를 이긴 것은 순전히 여당 바람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응주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당원들과의 괴리감으로 불리한 선거운동 모습을 낳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 패배를 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로 보인다.

종로구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선정환 후보가 국민의힘 박병철 후보를 이번 없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관세가 강력한 제2선거구는 누가 후보가 돼도 승리를 장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난히 당선인 예상됐는데, 선거 결과도 3,950표라는 큰 차이로 승리를 잡았다. 선정환 당선자는 종로구의회의 부의장을 지낸 선상선 전 구의원의 장남이기도 하다.

이번 종로구 지방 선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종로구의회의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구의회를 장악하게 된 것

정장 이하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의 승패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특히 불리한 진실은 구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구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또는 3명을 선출하는 방식의 중선거구제인데 이 중 후보자들은 기호 '가 번'과 기호 '나 번'으로 구분하여 공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항상 기호 '가 번'에 대한 투표 몰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기호 '가 번'만 때때로 당선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없이 무조건 기호 '가 번'을 찍는 형태가 되어 기호 '나 번'은 항상 들러리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우선 주민의 투표 행위가 부적절한 행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제도 자체를 개선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 6.3 종로구 선거 투표율 63.6%

지난 2022년 보다 약 10% 증가 수치  
역대 최고 수준, 여당 압승 광풍 작용

지난 6.3 종로구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약 63.6%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종로구 지방선거에서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서 총선거인 수 125,290명 중 79,61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기권자 수는 45,6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등별로는 무악동이 70.4%로 최고 투표율을 보였고, 종로1.2.3.4동이 50.4%

로 최저 수치를 나타냈다.

투표자 수 별로는 8,520명의 평창동이 최고 수치였고, 최저는 1,049명의 삼청동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광풍으로 연동되면서 종로구청장 이하 시의원 2명과 구의원 6명을 당선시키는 압승으로 귀결됐다.

▶관련 기사 5면

## 종로구의회 제351회 정례회 개최

21일간 일정, 동 행정사무감사 등 실시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차원 구민 제보 접수

제9대 종로구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51회 정례회가 지난 5일부터 열렸다.

오는 25일까지 21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하며, 3개 상임위원회 병안심사를 처리한다.

또한 15일부터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에따라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 질문과 답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9대 종로구의회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마지막까지 본연의 의정활동 및 의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노고와 그 의미를 더하는 모습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오는 7월 초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종로구의회는 지난 10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 제보를 받았다. 접수된 제보 대상은 구정 전반의 위법·부조리 및 부당한 행정 사례,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기타 구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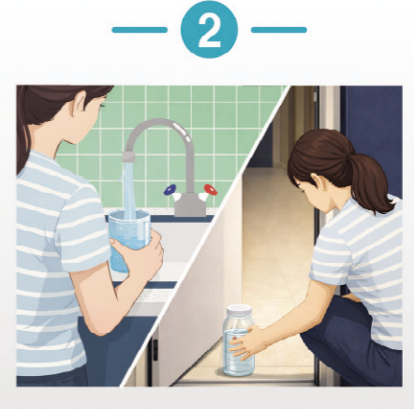
라도군 종로구의회 의장은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는 우리 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보내주시는 귀한 목소리 귀담아듣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동행-매력 특별세상 SEOUL MY SOUL

## 이제 비대면으로도 받아보세요! 우리집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



1 누리집 신청



2 깨끗한 밀폐용기에 담아문앞 보관



3 수질검사원 수거



4 결과문자발송 or 결과지 전달

야간에도, 휴일에도 OK!  
5월부터 비대면 검사도 OK!  
배달앱 땡겨요로도 신청 가능



# 6·3 종로구 지방선거 당선자

## 종로구청장 당선자



유 찬 종로구청장

## 서울시의원 당선자



윤 선 희 서울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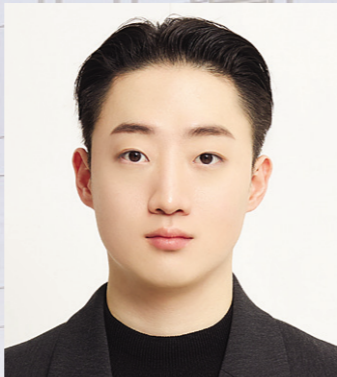


신 정 환 서울시의원

## 종로구의원 당선자



노 진 경 종로구의원



김 호 준 종로구의원



여 봉 무 종로구의원



신 기 수 종로구의원



이 미 자 종로구의원



박 희 연 종로구의원



유 양 순 종로구의원



김 중 보 종로구의원



이 시 훈 종로구의원



강 수 은 종로구의원

## 종로·사·람·들

###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 제351회 정례회 개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제9대 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의인 제351회 정례회를 지난 5일부터 개최,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 장만석 종로소방서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은 지난 달 29일 오후 종로구 효제동 98번지 신축공사장을 방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재난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 최도규 중부교육장 페스타 그린워크 개최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5월 27일,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및 청계천 인근에서 생태전환교육 실천마당「2026 중부 생태 페스타 그린워크 (Green Walk)」를 개최했다.

### 신영자 공단 이사장 북악팔각정 새단장



신영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8일부터 북악팔각정 내 주차장 등 시설 새 단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시설을 임시 미운영한다.

## 야간 도로 침수 민원 신속 처리

###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이 "지난 20일 혜화경찰서(종로 375번지) 앞 도로에 침수가 발생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 구청 관계 부서에 상황을 전달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나 갑작스러운 침수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늦은 시간에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안전 조치가 힘써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을 빠르게 살피고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종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승진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 종로소방서, 이주성 소방위 등 2명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지난 6월 1일 오전 본서 3층 다목적실 내 교육장에서 이주성, 오병주 2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장만석 서장을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진 임용자들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계급에 따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승진자는 2명으로 이주성 소방장이 소방위로, 오병주 소방사가 소방교로 각각 승진했다.

## 창신 두산아파트 상층부 화재

### 종로소방서, 가상 훈련 실시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지난 4일 오후 창신두산아파트에서 상층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대원들은 화점층 직전 아래층까지 소방호스를 전개한 뒤 휴대용 수관가방(고층팩)을 활용해 화점으로 진입하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문 개방 시 도어엔트리 절차와 호스 파지법, 층수된 소방호스 이동 기법 등을 반복 숙달했다.

또한 펌프차와 펌프차를 직렬연결하여 중계송수 훈련을 통해 고층부까지 안정적으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고, 소화전 점유와 수관 전개, 피난 동선 확보 등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핵심 전술을 집중, 훈련했다.

# — 1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

# “서울 도성 정취와 장어 요리 진수를 즐기세요”



**반구정**  
**진짜 100% 투썸 한우1++ 최저가**  
 \*진짜 100% 투썸 한우1++ \*투썸 한우가 아닐경우 10000% 보상합니다 \*전국 최저가 보장합니다  
**투썸한우1++ 풍천민물장어 도드람한돈 (보성농돈)**  
**9,900 원 9,900 원 7,000 원**  
 \*국내산 라포니카/민물장어가 아닐경우 10000% 보상합니다 \*매일 한정수량만 판매합니다



**종로 반구정민물장어**  
 (100% 국내산)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7-2 (금호 필레시빌딩 19층)  
 예약 : (02)766-2303 · (02) 741-3727  
 FAX : (02) 6731-2303 / H.P : 010-2639-2279



특집

6·3 종로구청장 선거

# 현역 불패 전통 깨트린 더불어민주당 광풍

##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 4년 전 패배 설욕



▲유찬종 당선자가 배우자와 함께 꽃다발을 받는 모습.

### 유찬종 후보 41,186표 대 정문헌 후보 37,240표 투표율 10% 증가, 몰표와 '묻지마' 투표로 연동 종로 사랑과 미래 비전 밝히는 4년 업적은 묻혀 주민 눈높이 안 맞는 공단 이사장 임용도 패착

지난 6.3 종로구청장 선거는 바람이 구도를 깬 결과다. 다시말해 현역 구청장 프리미엄을 더할 여미민주당 광풍이 불어 닥치면서 현역 불패 전통을 깨트린 셈이다.

이번 종로구청장 선거는 4년 전 대결했던 유찬종 후보 대 정문헌 후보가 재대결하는 양상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는 유찬종 후보가 이기면서 설욕을 했다. 유찬종 후보가 41,186표를 얻으면서 37,240표를 얻은 정문헌 후보를 3,946표 차이로 눌렀다. 이는 4년 전 3,068표 차이로 패배한 수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이긴 모습이다.

당초 선거 전부터 분위기는 중앙정치권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용으로 지지세가 약했기 때문에, 이번 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조건 우세한 분위기가 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들 4명 간에는 정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구청장 당선이라는 등식 아래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 중 유찬종 예비후보의 금품 전달 의혹이 터지고, 이로 인해 '무고 대 맞무고' 라는 후보자와 주민 간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유찬종 후보가

다소 여론에 흔들리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윽고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양 후보자 간의 판세 분석은 서로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 4년 전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유찬종 후보는 우세한 정당 지지도를 등에 업고, 지난 4년간의 외신상담 자제로 정당과 개인적 조지를 활용하는 '공성 운동'을 펼쳤다.

반면 현역 구청장인 정문헌 후보자는 현역 프리미엄과 함께 종로에서 중·고등 학교를 졸업한 학연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지난 4년간 쌓은 종로 사랑과 비전을 밝히는 공적을 바탕으로 조금은 느긋한 수성분위기를 보였다. 이른바 공성과 수성이 '바람 대 구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었는데, 결과는 정당의 광풍이 '묻지마' 몰표 투표로 이어지면서 현역 구청장의 아성을 여지없이 무너트리는 양태로 막을 내렸다.

선거 개표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가 크게 앞질러 가는 판세를 보이더니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했다. 이는 개표 초반에 사전 투표부터 개방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사전 투표 결과로 양 후보자 간 차이가 약 1만 표까지 나기도 했다.

하지만 본 투표용지가 개봉되면서 양 후보자 간 표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 3천여 표 차이는 시종 변동이 없었다.

이번 양 후보의 득표 현황을 보면 4년 전 투표율 54%보다 약 10%의 투표율이 증가했는데, 이중 약 80%를 유찬종 후보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전 몰표 투표와 '묻지마' 투표 형태가 대부분 유 후보에게 쏠린 현상이다. <득표 현황 참조>

후보자의 득표 특색은 종로구 지역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 상태였다. 승부가 갈린 것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서부지역에서 정문헌 후보가 예전과 비슷한 득표를 했지만, 반면 유찬종 후보는 4년 전보다 크게 선전을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4년 전과 달리 유찬종 후보가 정문헌 후보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하면서 승부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의 득표 현황을 보면 유찬종 후보는 창신동과 송인동 그리고 해화동에서 4년 전보다 약 두 배 가까운 득표를 보였다. 이러한 득표가 정문헌 후보를 3천여 표 차이로 따돌리는 분수령을 이뤘으며, 결국 이를 따라잡지 못한 정문헌 후보가 4년 전 이긴 표보다 더 많은 표 차이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는 정당 지지도가 반영된 바람이 광풍으로 돌변, 사전 투표부터 '묻지마 투표'와 본 투표의 '몰표 투표'가 이뤄지면서 4년 전보다 무려 8,329표가 늘었다. 물론 정문헌 후보도 지난번보다 1,315표가 늘어나긴 했지만 유 후보가 얻은 득표보다 3,946표가 부족하면서 패배를 했다.

결과적으로 정문헌 후보도 구청장 4년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종로구에서 얻은 37,071표보다는 169표를 더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찬종 후보도 정문헌 서울시장 후보의 39,395표보다 1,791표를 더 얻기도 했다.

이러한 득표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지역 특성을 넘어 창신동과 송인동

### 6·3 종로구청장 선거 득표 현황

영역구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국민의힘 정문헌	계		
합계		125,290	79,675	41,208	37,240	78,457	1,218	45,815
가소동	계	129	117	59	52	111	6	12
가소동	선거인투표	8,858	8,847	5,601	3,112	8,713	134	11
가소동	계	9,087	9,064	5,660	3,404	8,824	83	22
가소동	선거인투표	2,319	2,316	1,441	875	2,316	36	3
가소동	선거인투표	6,772	6,748	4,219	2,529	6,508	47	19

영역구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국민의힘 정문헌	계		
사직동	계	7,334	4,317	1,784	2,475	4,259	58	2,987
사직동	선거인투표	1,296	1,296	811	485	1,277	19	0
사직동	계	6,038	3,021	973	2,009	2,982	39	2,987
상왕동	계	1,725	1,049	465	585	1,030	19	676
상왕동	선거인투표	304	304	220	80	300	4	0
상왕동	계	1,421	745	245	485	730	15	676
부암동	계	7,226	4,431	2,226	2,261	4,387	44	2,795
부암동	선거인투표	1,264	1,263	899	352	1,251	12	1
부암동	계	5,962	3,168	1,327	1,809	3,136	32	2,794
봉암동	계	14,007	8,520	3,681	4,779	8,451	69	5,487
봉암동	선거인투표	2,411	2,409	1,596	792	2,388	21	2
봉암동	계	11,596	6,111	2,085	3,979	6,063	48	5,485
무악동	계	6,177	4,353	2,154	2,226	4,280	73	1,824
무악동	선거인투표	1,602	1,601	1,054	469	1,573	28	1
무악동	계	4,575	2,752	1,050	1,657	2,707	45	1,823
교남동	계	7,802	5,278	2,568	2,646	5,214	64	2,524
교남동	선거인투표	1,778	1,778	1,236	521	1,757	21	0
교남동	계	6,024	3,500	1,332	2,125	3,457	43	2,524
가회동	계	3,079	1,903	1,005	871	1,876	27	1,176
가회동	선거인투표	764	763	537	226	747	16	1
가회동	계	2,315	1,140	468	661	1,129	11	1,175
종로1-2-3-4 가동	계	5,657	2,855	1,302	1,500	2,802	53	2,802
종로1-2-3-4 가동	선거인투표	919	918	594	309	903	15	1
종로1-2-3-4 가동	계	4,738	1,937	708	1,191	1,899	38	2,801
종로5-6가동	계	4,552	2,413	1,221	1,221	2,378	35	2,139
종로5-6가동	계	718	767	519	235	754	13	1

영역구분	구분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자수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국민의힘 정문헌	계		
종로5-6가동	선거인투표	3,784	1,646	638	986	1,624	22	2,138
익동동	계	6,207	3,627	1,980	1,575	3,555	72	2,580
익동동	선거인투표	1,285	1,283	887	366	1,253	30	2
익동동	계	4,922	2,344	1,093	1,209	2,302	42	2,578
백암동	계	15,728	8,947	4,387	3,776	8,163	184	5,381
백암동	선거인투표	2,940	2,939	2,041	827	2,868	71	4
백암동	계	10,788	5,908	2,346	2,949	5,295	113	5,377
창신동	계	4,440	2,873	1,638	1,188	2,826	47	1,576
창신동	선거인투표	1,451	1,448	1,034	396	1,430	18	3
창신동	계	2,989	1,425	604	792	1,396	29	1,573
창신동	계	6,340	3,731	2,152	1,556	3,658	73	2,617
창신동	선거인투표	1,393	1,389	1,010	353	1,363	26	4
창신동	계	4,955	2,342	1,092	1,203	2,295	47	2,613
창신동	계	5,157	3,310	1,723	1,589	3,273	37	1,847
창신동	선거인투표	1,319	1,319	885	442	1,307	12	0
창신동	계	3,838	1,991	858	1,108	1,966	25	1,847
송인동	계	4,815	2,827	1,500	1,287	2,787	40	1,988
송인동	선거인투표	1,050	1,050	732	305	1,037	13	0
송인동	계	3,765	1,777	768	982	1,750	27	1,988
송인동	계	8,560	4,867	2,674	2,096	4,770	97	4,102
송인동	선거인투표	1,612	1,611	1,189	398	1,587	24	1
송인동	계	7,357	3,256	1,485	1,889	3,183	73	4,101
광복동	계	0	34	22	9	31	3	-34

주민들의 정 후보에 대한 실망도 담겨있다. 가령 지난해 이뤄진 공단 이사장에 대한 신규 임용이 주민 눈높이 맞지 않은 것이다. 이는 순전히 정 후보의 선거 공학적 선택이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오히려 선거 공학적 패착인 셈인데, 주민들은 이러한 선택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매우 불쾌한 의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단 이사장들의 자격과 품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공단 이사장 임용은 한때 창신, 송인동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선택이 종로와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쳐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냉정하게 평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의 광풍이 국민의힘 현역 구청장에 대한 기득권 구도를 깨부수면서 서부지역에서의 선전과 동부지역에서의 주민 반감이 합쳐져 승부를 가른 것으로 평가된다. 광풍은 거셌고 반감은 컸다. <李>

# 34년 전통의 “종로에는 종로저널이 있습니다”



“종로저널을 읽으시면 종로가 보입니다.”

- 대한민국 1번지 종로의 역사와 전통이 보입니다.
- 600년 문화속에 종로의 정치, 경제, 사회가 있습니다.
- 종로자치 30년의 종로 민주화와 주민 알권리가 읽힙니다.

<구독문의 : 02-723-5597>

PS : 국민은행 : 031601-04-019535  
신한은행 : 140-007-326220

